

제4집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한시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4집

한시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江苏工业学院图书馆
藏书章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金贞玉

责任校对: 崔顺兰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20世纪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4辑: 朝鲜文 / 许辉
勋等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10
ISBN 978-7-5449-0691-3

I. 中… II. 许…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作品综合
集-中国-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80114号

20世纪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4辑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960×640 1/16 印张: 48.25 字数: 6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91-3 (民文)

版次: 2009年10月第1版

2009年10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8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편찬위원회

- 고 문: 김병민
- 기 획: 리성권
- 명예주필: 권철, 김동훈
- 주 필: 허휘훈

- 편찬위원: (ㄱㄴㄷㄹ순)

김경훈(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김동훈(전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김호웅(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주임, 교수,
문학박사)

김운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권철(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교문, 교수)

리광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전성호(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채미화(연변대학 연구생원 원장, 교수, 문학박사)

최문식(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소장, 교수)

최삼룡(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허경진(한국 연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휘훈(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문학
박사)

제4집

한시

편찬자: 최문식, 김영덕, 차금순, 허휘훈, 소재영,
조규익, 김병민, 이정훈, 권철, 박일찬,
로성화, 주송희, 최 일, 김춘화.

간행사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탁월한 저력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해냈다. 그 풍부한 문화유산에는 삶의 슬픔과 지혜, 역사를 헤쳐나가는 선조의 힘이 숨배여있다. 하기에 우리의 문화유산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난세기 문학사료는 소중한것이고 두고두고 읽어보아야 할 보전(寶典)으로 남게 된다.

과경(跨境)민족으로서의 중국 조선민족은 19세기 후반기 이래로 수차의 문화적격변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른바 개화기의 격류속에서는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사이의 갈등, 한문문학과 국문문학간의 교체를 경험했고 식민지시대에는 국문문학의 문체혁신과 일제에 의해 책동된 전통문화의 쇠퇴, 말살이라는 시련을 겪기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와 역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 류이민 혹은 정착민으로 생활해온 우리 겨레의 지조있는 애국문인들은 결코 붓대를 던지지 않았다. 류린석, 김택영, 신규식, 신채호, 안중근, 이상룡, 김정규, 김소래, 최서해, 럽상섭, 주요섭, 최상덕, 강경애, 현경준, 김창걸, 안수길, 박영준, 황건, 김조규, 윤동주, 박팔양, 리륙사, 함형수, 리학성, 천청송, 김학철, 윤해영, 채택룡, 설인 등 헤아릴수없이 많은 문학도와 시인, 작가들이 바로 필설로써 그 시대를 증언해온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었다. 그들중에는 고국을 떠나 갈바람에 흠날리는 략엽마냥 정처없이 떠돌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 허허넓은 만주벌판에서

간도아리랑을 부른 망향시인이 있었고 하늬바람 불어치는 산해관을 넘어 북경, 서안, 상해, 무한 등 천년고도에 떠돌이로 남아 언론매체를 빌어 “친고”를 울리고 “진단”을 노래하고 청구의 “광명”을 만방에 호소한 청년전위가 있었는가 하면 백산, 흑수, 송료, 제로, 태항, 중원의 고전장에서 용마일생을 수놓아가며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도 있었으며 려순, 나가사끼, 후꾸오까의 감옥에서 단지혈맹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절단해가면서도 끝까지 혁명의 지조를 지켜왔거나 끝내는 “한점 부끄럼 없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민족의 제단앞에 바친 암흑기의 푸른 별들도 있었다. 그들은 문자에 앞서 온몸으로 지탱해온 삶 그 자체가 더 고결하고 값진것으로 여겨왔던것이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문화의 숲은 험결찬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부단히 충전시켜주는 불멸의 혈맥, 끈질긴 생명력의 고동으로 무성하게 자라고있으며 영광과 비애의 굴곡, 흥망과 성쇠의 기복이 교차되는 수많은 력사주체의 명멸을 간직한채 굳건하고 강인한 기백으로 오늘날까지 민족의 정기를 면면히 이어주고있다.

그들이 남긴 풍부한 문학유산은 그동안 중외(中外)학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발굴연구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를 둔것으로서 그 진면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조선족과 해방전 재중 한인, 조선인들의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 출판하는것은 정체적인 민족문화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수 없다. 그들이 남긴 문학자료는 지금도 중국 각지와 해외의 여러 도서관, 박물관, 당안관에 신문, 잡지, 일기, 필사본, 프린트본, 활자본 등 형식으로 흩어져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본 전집은 선배들이 중국땅에 남긴 문학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양하며 문학, 언어, 력사,

민속, 언론, 사회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학계 인사들에게 21세기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계통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있다.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진수를 정리, 간행하기 위한 계획이나 준비작업은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창립과 더불어 20세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권철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관계 선배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벌써 재중조선인 문학자료수집에 착수하였고 1990년에는 권철, 조성일, 최삼룡, 김동훈 등 네 연구원의 공동집필로 된 《중국조선족문학사》를 공개출판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는 한국 송실대학교 인문대학과의 공동연구과제로서 소재영, 권철, 김동훈, 조규익 교수를 중심으로 집필한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를 펴냈다. 같은 시기에 김영덕, 최문식 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고적연구소에서는 《류린석전집》, 《김택영전집》, 《윤동주유고집》, 《한양가》, 《연변조사실록》 등 중국지역에서 발굴, 정리한 17권의 민족고전을 출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학현장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두 연구소산하의 수십명 연구원들은 연변의 각 현, 시, 북경의 백림사, 상해의 서가회, 남경의 룡반리, 심양시 서류관, 할빈, 대련, 서안, 남통 도서관, 박물관 등 중국 국내 수백곳의 자료관을 누비면서 해방전 우리 민족의 흩어진 문학자료들이 게재되어있는 《천고》, 《진단》, 《독립신문》, 《민성보》, 《북향》, 《만선일보》, 《카톨릭소년》, 《광복》, 《신한청년》, 《조선의용대통신》, 《한민》, 《연변문화》 등 신문과 잡지 그리고 지난 세기초부터 이 땅에서 류전되었던 《백두산민담》, 《장백산강강지략》, 《초등소학수신용우화집》과 《싸트는 대지》, 《재만조선인시집》, 《혈해지창》 등 최초의 소설집, 시집 및 극본들을 속속 발굴하였으며 무려 1500만자에 달하는 작가문학자료와 800여수의

민요, 2000여편의 전설과 민담을 수집하였다. 그들은 하늘을 비상하는 “나비”가 아니라 밭로 땅을 기여다니는 “지네”와 같이 지나간 력사와 문화현장에 뛰어들어 문학현상 자체를 자기의 피부로 촉감하고 확인함으로써 오늘의 이 방대한 민족문학사료전집의 탄생을 준비하였던것이다.

본 전집의 출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첫째, 본 전집에는 중국 조선족작가와 재중 한인, 조선인 작가들이 건국(1949년)이전에 창작한 모든 시, 소설, 일반산문, 극작품 등 일체의 문예작품들을 수록한다.

둘째, 우리 문학의 세가지 큰 갈래인 조선문문학, 한문문학, 구비문학을 통해 력사적으로 이룩한 모든 양식을 함께 수록하도록 한다. 건국전에 창작된 작품을 30권에 나누어 일차적으로 간행하고 이를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사료전집으로 되게 한다.

셋째, 구비문학작품은 건국전에 수집된것과 건국후에 수집된것을 망라하며 그 내용이 해방전에 이미 구전으로 전승되었음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1차 간행본에 포함시킨다.

넷째, 언어상로나 력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부 원전은 원전과 현대역을 동시에 수록하려 한다. 현대역을 통하여 한문과 원전의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원전의 제시로 그 연구의 자료가 되게 하려 한다.

다섯째, 건국전의 작가문학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순으로 배열하고 구비문학은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한다. 건국이후의 작품은 2차적으로 그 출간을 계획해보려 한다.

1차 간행에 교부된 작품집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집-제3집 시(조선문)

제4집-제5집 한시
제6집-제12집 소설
제13집-제15집 산문
제16집 희곡
제17집 민요
제18집 문헌설화
제19집-제20집 전설
제21집-제29집 민담
제30집 별책(색인)

끝으로 본 전집이 편집, 출판되는 동안 관심있는 모든분들의
협력과 질정을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업에 동참해주
신 편찬위원, 책임편자, 역주자 여러분과 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허휘훈
연변인민출판사 사장 리성권

2008년 8월 15일

일러두기

이 전집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엮었다.

1. 중국조선족의 기록, 구비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재중 한인(漢人), 조선인이 중국지역에서 창작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2. 20세기 전반기에 창작, 발표된 문학작품을 일차적선제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 전집 각권의 출판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하였다.

4. 한시와 기타 한문(漢文)으로 씌여진 원전은 매편마다 원문을 앞에 싣고 역문을 뒤에 함께 수록하여 상호 참조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5. 원전에 나오는 일부 지명, 인명, 전고, 방언과 알기 어려운 글자, 루락, 오기 등에 대해 필요한 주를 달았다.

주석표기는 원문(혹은 역문)에 번호를 붙이고 해당 면 하단에 각주(脚注)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6. 고한문 원전은 번체자로 표기하고 리해가 어려운 한자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넣어 병기하였다.

7.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는 중국에서의 현행 조선말 규범원칙을 따르되 어학적, 민속적 가치가 높은 해방전 원전은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8. 이 전집에서 사용한 주요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음이 같은 한자를 병기함.
- 2) []: 음은 다르나 뜻이 같을 때나 혹은 풀이한 한문을 병기함.
- 3) 《 》: 책, 신문, 잡지 이름을 나타냄.
- 4) “ ”: 작품명, 대화나 인용을 나타냄.
- 5) <?>: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냄.
- 6) □: 원전 또는 원문에서 루락된 문자를 나타냄.
- 7) 주석은 1), 2)로 표시하여 해당 면 하단에 표기함.

《한시》에 대하여

중국조선민족의 기록문학은 한시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문단에서는 20세기초에 이미 국문학이 대두하기 시작하여 한문학의 폐단이 날날이 지적되었으나 반생을 한문을 통해 사리판단을 해온 김택영 등 전통적인 문인들은 20세기 20년대까지 줄곧 한시의 정통을 수호하였으며 국문문학에로의 전환론리를 펼쳐온 장지연도 한시창작을 완전히 외면할수는 없었다. 이 시기 한시창작의 담당층은 주로 항일지사, 의병장, 독립군 장병과 림정요원 및 초야에 묻힌 일부 한학자, 지성인들이었다.

이 책에는 선차적으로 류린석, 장지연, 안중근, 신규식, 신채호, 김정규, 김승학, 김지섭, 김좌진, 리정, 계봉우, 김중건, 전덕원, 로백린, 김두봉, 윤봉길, 조정환, 부평초, 림지산, 완사, 극화, 백취광부, 우천, 계민오각, 백산학인, 무명씨 등 26명의 항일지사들이 중국 망명시에 창작한 애국애족 및 반일 한시 700여수를 수록하였다. 이런 작품들은 그들의 문집이나 일기에 수록된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그 당시의 신문, 잡지에 게재된것들이다. 그들의 생애와 작품의 출처, 창작배경, 문학적가치 등은 해당 작품의 해제에서 간단하게 제시해주었다.

원전에 대한 리해의 편리를 위해 매수마다 역문을 첨가하고 동시에 필요한 주석을 달았다. 번역에서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될수록 간결하면서도 시적정취가 풍기도록 하는

라고 애썼지만 자료의 부족과 시간적제한으로 말미암아 불비하고 미숙한 점들, 심지어는 오류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독자들과 전문가들의 기탄없는 비평과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편자 일동

차례

간행사/ 1
일러두기/ 7
《한시》에 대하여/ 9

류린석편

愚溪宅拈杜詩“秋盡”韻	
우계덕에서 두보의 “추진” 시운을 따서	4
共詠杜詩韻	
두시운으로 함께	5
立石	
립석	6
次怡雲丈拈杜律韻	
이운장이 따온 두보의 률시운을 밝아	6
次怡雲丈“岳陽樓”韻	
이운장의 “악양루” 운을 밝아	7
怡雲, 昭山(李明瑞)來會共拈唐律韻	
이운, 소산(리명서)과 함께 당률시의 운을 따서	8

再從弟聖協來見共拈杜詩韻	
찾아온 룡촌동생 성협과 함께 두보시의 운을 따서	9
怡雲丈拈唐韻共詠春雨	
이운장이 당시 운을 골라 함께 봄비를 읊노라	9
伏和省齋先生“詠玉溪九曲”	
성재선생의 “옥계구곡을 읊고”에 삼가 화답하노라	11
朝宗川歌	
조종천의 노래	15
敬題大明高皇帝“忠孝節義”四大字	
대명고황제가 쓴 “충효절의” 네 글자를 삼가 읊노라	17
洪武壁歌(乙未)	
홍무벽의 노래(을미)	19
奉和恒窩(柳重岳)寄示韻	
항와(류중악)가 보내온 운에 삼가 화답하노라	21
曆留蓬坪	
봉평에 다시 머물리	21
遵海謾吟	
바다가를 따라가며 읊노라	22
客遼見倡戲	
료둥에서 창회를 보고	23
奉和梧湖李友(鳳夏)寄示韻	
친구 오호 리봉하가 보내온 시의 운에 따라 삼가 화답하노라 ..	
.....	23
贈洪汝質(德初), 鄭建中(華鎔)	
홍여질(덕초), 정건중(화용)에게 드리노라	24
贈南胤五(永洙)	
남윤오(영수)에게 드리노라	25
追輓鄭校理(寅協), 略述同庚, 同鄰, 同習禮, 同舉義之懷, 以和	

去年遠贈詩章

정교리(인협)를 추모하면서 그와 동갑이었고 이웃이었으며 습
례와 의거를 같이하였던 회포를 락술하여 작년에 그가 멀리서
보내준 시편에 화답하노라 26

贈元景明(世炳)歸故國

귀국하는 원경명(세병)에게 드리노라 28

贈柳群躍(基淵)

류군약(기연)에게 드리노라 29

夜起書懷

밤에 일어나 회포를 적노라 30

中秋節日，和習齋(李宜愼，初名昭應，又改直愼)韻 31

중추절에 습재(리의신, 초명은 소응 또 직신으로 고침)의 시운
에 화답하노라 31

同日呼韻自詠，請節谷(邊錫玄)，習齋附和

같은 날에 운을 내어 시를 읊고 절곡(변석현)을 청하여 습재께
화답하노라 32

次習齋“落木”韻

습재의 “락목” 운을 밝아서 32

金仁伯亨麟自搗勸弟侄讀書，節谷、習齋諸友作詩以美之，爲題
軸後 33

인백 김형린이 자신을 매질하면서 동생, 조카들에게 독서를 권
고하매 절곡, 습재 등 친구들이 시를 지어 찬미하니 책뒤에 써
놓노라 33

奉和邊節谷

변절곡에게 화답하노라 34

夜坐讀《易》

밤에 앉아 《역경》을 읽으며 35

奉和錦溪(李根元)見示韻